

No.24

Japan Weekly Digest

2010. 3. 1 ~ 3. 7

□ 금주의 이슈

- ‘한국기업으로부터 배우자’ 일본경제신문 사설
- 대기업 경상이익 2배 증가, '09. 4분기 법인통계
- 교세라, 일본 최대 태양전지 공장 건설

□ 일본 정재계 소식

- 日, ASEAN 인프라정비계획 발표
- 연금개혁 본격협의 실시
- 브라질 고속철도 수주를 위해 금융지원

□ 경제산업성 및 기업 동향

- 나오히마 경산상, 도요타문제로 관련업계 영향 우려
- 요코하마市, 스마트그리드 실험도시 컨소시엄 구성
- 구리광산 개발에 일본기업 투자 확대

□ 일본 관련 보고서 리뷰

- ‘신흥국에 활로를 모색하는 일본기업’
SERI ('10. 3. 2)

□ 파트너를 찾습니다

- [한국의 미술품과 전통공예품] 톱아트
- [(자동차용)사출성형금형] 미시마코산
- [바이오 관련 벤처기업]



협회 한일경제협회

Korea-Japan Economic Association

※ 자료제공 : 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

※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(<http://www.kje.or.kr>)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, 본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(Tel.02-3014-9888)

□ 금주의 이슈

○ ‘세계로 도약하는 한국기업으로부터 배우자’ 일본경제신문 사설

- 일본경제신문은 ‘한국기업으로부터 배우자’라는 특별 사설을 게재하고 한국기업의 강점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배워야 할 것은 배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
- 한국 기업의 약진 배경에는 1)불황 속에서도 적극적인 투자와 대범하고 신속한 경영 판단, 2)고부가가치 상품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판매 전략, 3)신흥 개도국 시장을 공략하는 해외전략이라고 소개
- 일본 기업은 한국재벌처럼 오너경영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모방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,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의지나 결단력, 위기의식은 배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
- 그리고 업종별 재편 및 집약을 통해 규모의 이익을 통한 집중투자와 해외 자원배분을 강화하는 경영 전략도,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

○ 日기업 경상이익 2배, 4/4분기(10~12월) 법인 통계

- 재무성이 4일, 발표한 2009년 4/4분기(10~12월) 법인기업통계에 의하면, 전산업(금융·보험을 제외)의 경상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배가 늘어난 10조3763억 엔이었음
- 전년 동기 대비 이익이 늘어난 것은 07년 2/4분기(4~6월)이래, 2년 반만이며, 정부의 경기대책 효과와 수출 회복에 의해 기업실적이 회복된 것으로 분석
- 하지만 설비투자는 17.3%감소하여 계속 침체. 특히 제조업은 34.5% 감소하여 과거 두번째로 감소율을 기록

○ 교세라, 일본최대 태양전지 공장 건설

- 교세라는 2일, 시가현 야스 사업소내에 일본 최대 규모의 태양전지 셀 공장을 건설한다고 발표
- 건축면적은 1만2738㎡(철골造 6층 건물, 130×90m), 총건평은 6만 8151㎡. 다결정 실리콘형 태양전지 셀을 주로 생산할 계획으로 6월 가동을 목표
- 同 공장은 생산성을 대폭 향상시킨 생산라인을 구축, 양산 수준의 다결정 실리콘형에서는 최고급 고효율 셀을 생산하고 태양광발전시스템도 설치할 예정

□ 일본 정재계 소식

○ 日, ASEAN 인프라정비계획 발표 15조엔 규모

- 교도통신은 4일, ASEAN이 일본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1,700억불 규모 (약15조엔)의 인프라정비·자원개발 실행계획안을 보도
- 프로젝트 내용은 ASEAN역내의 고속철도, 고속통신망, 천연가스 파이프라인, 발전소 등 인프라 정비를 위해 약 600개의 사업으로 구성
 - * 이중 460개는(약1억불)은 일본과 중국 등 주요국가와 아시아개발은행이 자금협력을 통해 실시
- 기획안에 의하면, ASEAN 역내를 1)메콩지역, 2)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, 태국, 3)필리핀 등 3개권역을 중점개발지역으로 설정하여 추진

○ 정부, 연금개혁 본격 협의 실시

- 하토야마 총리는 1일, 센고쿠 국가전략상과 나가츠마 후생노동상과 회담하고, 연금제도 개혁을 위해 관계각료 협의회를 설치기로 결정
-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액 이상의 연금이 지급되는 최저보장연금 신설이나, 국민, 후생, 공제 등 각 연금제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
- 협의회는 총리를 비롯해, 간 부총리·재무장관, 전략상, 후생노동상 등이 참가

○ 日, 브라질 고속철도 수주를 위해 금융지원

- 브라질이 계획하고 있는 고속철도사업을 일본기업이 수주 할 수 있도록, 정부가 금융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발표
- 5월 입찰 예정인 건설비 1조7,000억엔 규모의 고속철도계획에 대해 신간선방식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

<일본정부가 지원하는 해외철도 프로젝트>

브라질	리우데자네이루-상파울루 고속철도 약510km, 1조 7000억엔	미쓰이물산, 미쓰비시중공업, 히타치제작소, 도시바 등
베트남	하노이-호치민 고속철도 약1600km, 5조엔	가와사키중공업, 히타치, 미쓰비시중공업
인도	델리- 뭄바이 화물철도 약1400km, 제1구간 4500억엔 차관	가와사키중공업

□ 경제산업성 및 기업 동향

○ 나오히마 경산상, 도요타문제로 관련업계 영향 우려

- 나오히마 경산상은 기자회견에서 도요타의 대규모 리콜 문제에 대해 「판매 대수도 악화되어 있다고 듣고 있어, 일본경제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」라고 언급
- 나오히마 경산상은 도요타문제는 단순히 도요타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련업체 전체에 대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
- 지난 25일에도 도요타 문제에 대해 브랜드 이미지 악화는 불가피하고, 이번 사건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강조하였음

○ 요코하마市, 스마트그리드 실험도시 건설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

- 요코하마市는 3일, 스마트그리드 실험도시 건설을 위해 경산성이 기획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닛산자동차 등 5사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응모했다고 발표
- 요코하마시는 미나토미라이 21지구에서 주택, 빌딩 등 에너지이용 상황을 파악, 조절하는 시스템 구축과 전기자동차의 충전지활용시스템 등을 제안할 예정
- 경산성은 자치단체나 컨소시엄으로부터 응모를 받아 4월,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
- * 컨소시엄 구성회사 : 닛산자동차, 도시바, 파나소닉, 메이덴샤, 액센츄어

○ 구리광산 개발을 위해 일본기업 투자확대

- 구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, 일본의 비철회사와 종합상사인 닛코금속과 미쓰이금속, 미쓰이물산은 약 20억불(약 1800억엔)을 투자, 칠레에서 구리광산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발표
- 일본기업의 투자는 대규모 자원개발회사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 자사권익 비율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자원조달하기 위한 목적
- 현지법인에는 닛코와 미쓰이금속의 공동출자회사인 「펜 퍼시픽·카파」(PPC)가 75%, 미쓰이물산이 25% 출자

□ 일본 관련 보고서 리뷰

‘신흥국에 활로를 모색하는 일본기업’, 삼성경제연구소(2010. 3월2일)

○ 일본의 대외전략 변화

- 일본이 신흥국 전략을 대대적으로 강화
- 일본제품의 고품질 중심의 기존 전략에는 한계
 - * 고부가가치 제품에 의존한 수출전략은 수출을 감소시키는 원인
- 신흥국 수출이 일본경제의 버팀목 역할
- 전 세계적으로 신흥국 중산층 및 BOP시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

○ 시사점

1. 일본기업의 신흥국 전략 변화를 주시할 필요

- 금융위기 이후 일본의 대외전략 변화를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인식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

2. 신흥국에서 한국제품과의 경쟁이 더욱 심화

- 일본기업의 신흥국 전략 변화로 신흥국 시장에서 한국제품과 경쟁이 심화될 전망

3. 신흥국에 대한 정보 수집 및 공유 시스템 강화

- 한국정부와 기업은 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수집된 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

4. 기존 시장 및 주력 제품을 유연하게 대응

- 신흥국의 수요 특성에 맞도록 생산전략을 유연하게 대응하고 저가격 실현과 공정기술에 대한 R&D투자를 강화
 - * 안정성과 품질을 중시하는 상품, 디자인과 가격을 중시하는 상품으로 양분하여 가격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

【일본관련 주요 보고서】

□ 『온실가스 배출삭감에 관한 중기목표 설정을 위한 논의』 미쓰비시종합연구소, 3월2일

- 현재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전체의 5%미만이며, 중장기적으로는 영향이 작아질 것임. 세계전체의 배출삭감에 공헌하려면, ‘양적인 공헌’보다도 ‘질적인 공헌’에 중점을 둔 정책이나 제도를 국제적으로 제안해 가는 것이 중요

□ 『남유럽보다 큰 일본의 누적 채무』 제일생명경제연구소, 3월2일

- 일본의 09년도 누적채무가 GDP대비 174%에 달해 그리스의 125%보다도 심각한 상황. 조기에 재정개선이 필요하지만 가장 이상적인 것은 고성장에 의한 세수 증가에 의해 달성되어야 함

□ 『고용을 둘러싼 현황과 과제』 노동정책연구(후생노동성), 3월3일

- 일본은 출생률 감소/고령화에 의해 노동인구 감소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. 노동인구의 감소를 막기 위해, 여성과 고령자의 취업촉진이 필수. 국제경쟁환경을 고려하면서 고용자의 육성, 임금 하락을 막는 것이 과제

2010. 3월	주 요 일 정
3월 1일(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중의원예산위원회 공공사업에 관한 집중심의 ◦ 2월 신차판매 대수발표(자판연)
3월 2일(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2010년도 정부예산안 중의원 통과 ◦ 하토야마 총리, 라오스 국가주석과 회담 ◦ 1월 실업률 발표(총무성) ◦ 2월 미국신차판매 발표(도요타 판매대수 주목) ◦ 울산광역시-구마모토 ‘우호협력도시’ 체결 ◦ 구미클러스터-후쿠오카중소기업경영자 교류회 개최
3월 3일(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1월 매월 근로 통계 조사 속보(후생노동부)
3월 4일(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오카무라 일본상공회의소 회장 기자회견 ◦ ‘09. 4/4분기(10~12월) 법인기업통계 발표(재무성)
3월 5일(토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미국 고용통계 발표

□ 파트너를 찾습니다

1. [한국의 미술품과 전통공예품]을 수입하고 싶다고 의뢰해 왔습니다.

☞ 의뢰기업명 : 톱아트(일본의 미술품, 공예품 통신판매사)

2. [(자동차용)사출성형금형]을 수탁생산해줄 한국기업을 찾고 있습니다.

☞ 의뢰기업명 : 일본 기타큐슈시 소재 '미시마코산'

☞ 한국기업의 조건 : 현대, 기아 등 주요 자동차 메이커와의 거래관계에 있을 것

3. 일본의 투자전문기관에서 투자대상이 되는 한국내 [바이오 관련 벤처기업]을 찾고 있습니다.

* 관심있으신 회원은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비즈니스협력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(담당 : 전재용 선임연구원 / Tel : 02-3014-9845 / jyjun@kjc.or.kr)

♣ 時事用語 ♣

□ 텍스 헤이븐(Tax Haven)

법인세나 이자, 배당의 세금이 없거나, 아주 싼 나라나 지역을 말한다. 조세 회피 지역이라고도 부르며, 카리브해의 케이만제도 등이 유명하며, 다국적기업이나 금융기관, 헤지펀드(hedge fund) 등이 과세부과를 회피하려고 주로 이용해 왔다. 일본의 텍스헤이븐 세제는 법인세부담이 2.5%이하의 국가나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, 꼭 법인세가 싸다고 할수 없는 국가나 지역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등 지적이 많다. 많은 일본기업이 진출하고 있는 중국이나 베트남 등에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. 정부는 예외조치를 마련하고 있지만, 기준이 엄격하다며 경제계에서는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.

□ 쿼텀점프(Quantum Jump)

○ 쿼텀점프는 물리학 용어로, 양자세계에서 양자가 어떤 단계에서 다음단계로 갈 때 계단의 차이만큼 뛰어오르는 현상을 뜻하는 말임. 즉 어떤 일이 연속으로 조금씩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계단을 뛰어오르듯이 다음단계로 올라가는 것을 말함.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차용하여 기업이 사업구조나 사업방식 등의 혁신을 통해 단기간에 비약적으로 실적이 호전되는 경우 쿼텀점프(Quantum Jump)라는 용어를 사용함.

[출처 : Qeekly, 주일후쿠오카총영사관]

제42회 한일경제인회의

THE 42ND KOREA-JAPAN BUSINESS CONFERENCE

2010. 4. 14 ~ 17 OKAYAMA, JAPAN

우리 협회(조석래 회장)는 한일 양국 경제인 간의 대화의 장으로서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제42회 한일경제인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, 관심 있는 기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.

기간 : 2010년 4월 14일(수)~17일(토) 장 소 : 일본 오카야마시(岡山市) 호텔 그란비아 오카야마

4월 15일(목)		4월 16일(금)	
15:00~15:05 개 회	개회(일한경제협회 : 예방활동 보고 등)	09:00~11:35 제 1 세션	『동아시아 경제연대(공동체)와 한일관계』 - 사회 : 후카가와 유키코(深川由起子) 와세다대학 정치경제학술원 교수 ■ 한국측 발표자 : 이경태 국제무역연구원 원장 이수철 삼성물산(주) 지문역 ● 일본측 발표자 : 카와이 마사히로(河合 正弘)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 소장 우에노 켄지(上野 健次) 도레이(주)이사국제부문장
15:05~15:15 개 회 사	■ 조석래 한일경제협회 회장 ● 이이지마 히데타네(飯島英胤) 일한경제협회 회장		11:40~13:20 오찬회 및 공동성명(안) 심의회
15:15~15:25 내빈축사	■ 권철현 주일한국대사(미정) ● 이시이 마사히로(石井正弘) 오카야마현지사(岡山縣知事)	13:30~15:40 제 2 세션	『금후의 환경경영과 그린 비즈니스의 전개와 전망』 - 사회 : 오키노기 마사오(小此木政夫) 게이오기주쿠대학 법학부 교수 ■ 한국측 발표자 : 유연철 외교통상부 녹색환경협력관 기업 사례 1사(미정) ● 일본측 발표자 : 아다치 에이이치로(足達英一郎) (주)일본종합연구소 創發戰略 센터/ESG리서치센터장 유키 오사무(一木 修)(주)자원종합시스템 대표이사사장
15:45~16:45 기조연설	■ 이흥구 서울국제포럼 이사장 /전 국무총리 ● 고미야마 히로시(小宮山 宏) 미츠비시종합연구소 이사장 /동경대학총장고문(전 총장)		16:00~16:20 공동성명 채택, 폐회인사 / 공동기자회견
16:45~18:20 보고·제안	■ 한일신산업무역회의의 보고·제안(인재교류/부품소재·무역투자) ● 협회활동의 일반경과보고		
19:00~20:30 리셉션	환영리셉션 (양국 공동 주최)		

4월 17일(토) OPTION PROGRAM

■ 참가대상 : 기업(단체)의 최고 경영자 및 임원, 정부 각 기관의 최고 경영자 등 각계 전문가

■ 문의 : (사)한일경제협회 사무국 : 02-3014-9877 ■ 참가안내 및 신청서는 www.kje.or.kr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. (3월 19일 마감)

주최 :  (사)한일경제협회
Korea-Japan Economic Association

JKE 社団法人 日韓経済協会
Japan-Korea Economic Association

협력 :  지식경제부
Ministry of Knowledge Economy

 KICF 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
KOREA-JAPAN COOPERATION FOUNDATION
FOR INDUSTRIAL AND TECHNOLOGY